



성전 건축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이번 주 묵주기도 중 기억할 분들 (10월 5일 ~ 10월 11일)

월	김화열 도나다, 천영애 미카엘라, 민성훈 라파엘, 한은숙 프란치스카, 신순희 막달레나, 김다훈 라파엘, 오한옥, 이경은, 김정실, 박주미 모니카, 박영빈, 신상숙, 김혜린, 정영수 모니카, 정옥심
화	김나현 엘리사벳, 정종관 바오로, 나경민, 이대홍 아우구스티노, 박무일 베드로, 박 마르티나 수녀, 이정순 루치아, 김정심 마리아, 공운표 요셉, 김선일, 문인기 플라베르, 박신자 엘리사벳, 김혜연 파비올라, 김순옥, 허진옥 카타리나
수	이송학 안나, 이명옥, 최병종, 전형주, 이해선 로사리아, 김화자, 김온전 안나, 권수지 베로니카, 박지현 요아킴, 김기용 요한, 김규옥 글라라, 박희순 크리스티나, 박준환 요한보스코, 이재억 바오로, 이도권 스테파노
목	이정환 야고보, 권진배 노엘, 박진수 크리스티오, 국순옥 안젤라, 유승헌 미카엘, 이수지 미카엘라, 나효경 켄마, 유호승 마지아, 정순철 소피아, 안영화, 유영근, 허숙영, 박혜련, 이현숙 엘리사벳, 이 요셉
금	강미란, 현순재 아녜스, 김월순, 김태진 바오로, 장수희 레오, 김덕숙 로사리아, 차병도 마태오, 차예준 미카엘, 김소진 스텔라, 안선주 폴리나, 최 요안나, 조미리, 김동규 시몬, 목영애 아델라, 양귀자
토	서철호 다니엘, 서예빈 플로라, 서예진 마리아, 변정윤 솔리나, 조을연 안나, 이숙경 히야친타, 신명철 미카엘, 김윤옥 마리아, 홍두표 안드레아, 박미옥 프리스카, 이성인 프란치스코, 김두남 베로니카, 이재형 스테파노, 이지민 미카엘, 이수민 라파엘
주일	최현자 아가다, 이정수 미카엘, 형수연 클라우디아, 형채은 테클라, 형서경 안나, 박경순 크리스티나, 이해운 리베레다, 이윤정, 임남이, 이윤자 사비나, 안재인 마리아나, 홍영애 마리아, 김용일 요셉, 최은애 베로니카, 문옥수 루치아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3명 중 주일미사 167명 참례 / 참례율 : 23.42%

평일미사			화 (9/29) 내촌 / 본당	수 (9/30) 본당 / 송정	목 (10/1) 송정 / 본당	금 (10/2)
			18명 / 28명	17명 / 10명	7명 / 28명	16명
주일미사 (9/27)	토요일 저녁	송정공소	교중미사			
	24명	30명	113명			



2026 창조시기 기도

살아 있는 물

거룩하신 하느님, 한 처음에 하느님의 영은 물 위를 감돌고 있었고,

이제 저희는 하느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피조물의 일원으로 하느님 은총에 목말라하며 모였나이다.

우리 공동의 집의 핏줄이며 향백나무와 고래, 초원과 도시를 살리는 물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지역마다 흐르는 물로 우리 터전과 그 안의 피조물이 풍요로워지니 감사하나이다.

흠뻑 물을 댄 하느님의 동산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모든 물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되니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이 선물을 한낱 상품처럼 다루어 왔음을 고백하나이다.

쓰레기로 바다를 숨 막히게 하고 뜨거워진 바닷물이 심판하듯 차올라도 지켜보기만 하였나이다.

이제 저희는 가뭄으로 갈라진 땅과 기후 난민들의 쓰라린 눈물에 탄식하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어 참회의 물결이 흐르게 하소서.

모든 생명의 주님이신 하느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만물이 살아나리라 약속하셨으니,

물을 돌보는 소명을 저희에게 일깨우시어 강 유역을 보호하고 물의 권리를 수호하며

목마른 이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게 하소서.

하느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샘이 되어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샘물이 힘차게 솟아오르게 하소서.

바위에서 물을 내신 아버지 하느님, 광야를 헤매는 저희를 붙들여 주소서.

살아 있는 물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님,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회복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은총의 물결 위로 저희를 싣고 이끄시어

공정이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의 정성 연중제26주일

주일 헌금	889,000	주일헌금(송정)	241,000	교무금	300,000
양성, 복지, 원로	45,000	미래 기금	25,000	감사헌금	100,000
2차 헌금	651,000				

교무금 최정화, 유옥순, 김후태, 청안건설, 강인식, 장혜분, 안영재, 권일용, 신정희, 강민정, 신현수, 손삼술, 이은순, 노양호, 윤정숙, 최인순, 박영수, 이효순, 김석기

감사헌금 김민자(데레사) 100,000



성전 건축 기금 현황 2026년 9월 30일 기준

구 분			이번 주	2026년 누계
수입	우리 본당	교무금 납부시 건축기금	90,000	11,133,000
		약정 기부	1,600,000	157,870,000
		2차 헌금		9,979,950
		기타 수입		25,382,463
	외부 모금	타본당 모금	33,515,000	187,792,326
		매일미사	4,260,000	91,430,120
		평화방송	15,475,000	249,577,209
		가톨릭 평화 신문	133,000	16,488,000
		가톨릭 신문	1,070,000	50,445,000
		ARS 후원	1,125,000	1,125,000
기타 후원	373,000	21,912,000		
합 계		57,641,000	823,135,068	
지출	건축	설계비		36,041,570
		건축 준비비		7,560,000
	모금 홍보	광고비		52,351,200
		모금 준비비	32,740	7,795,760
		봉사자 지원비	1,364,060	2,804,910
	합 계		1,396,800	106,553,440
현 잔액			1,383,429,544	

본당 약정기부 약정기부 145세대 189,220,000원 중 157,870,000원 납부 (납부율 83.43%)

김정의, 문경숙, 송기준, 소옥선, 김복연, 박순우, 백승환, 사정애, 이명희, 박광열, 신정호, 원일정

타본당 모금

스무쥬성당 1,180,000원 이정숙, 서순자, 박찬애, 김지연, 장경수, 고석순, 이미화, 백정자, 이명숙, 강정순, 한은정, 양춘숙, 유창연

죽림동성당 385,000원 김화열, 진선희, 송한주, 김경희, 남궁주일, 김자운, 손명자, 목진수, 손문자

교동성당 2,800,000원 천영애, 민성훈, 강지희, 김정수, 박주영, 김춘자, 김미령, 박종각, 황상숙, 이남순, 원현철, 박주영, 이상배, 김상숙, 김명섭, 이명숙

철원성당 29,150,000원 박정준, 이진숙, 전인영, 김미란, 안현자, 이춘미, 이채연, 최다인, 박인영, 임정미, 이대현, 고태석, 김상래, 김희정, 김대복, 윤다미, 양석준, 민은혜, 윤성훈, 강연순, 박정임, 김효진, 홍선희, 남수현, 최예린, 김장원, 강상택, 이계옥, 유해영, 이춘금, 강연순, 김영자, 임영숙, 남상균, 신명숙, 허정옥, 최순분, 김응빈, 한현숙, 유춘실, 최금희, 정재후, 변두애, 송지훈, 전향선, 이봉우, 이정은, 신은순, 윤명순, 이창기, 박종술, 박화연, 유숙자, 장춘금, 최문자, 김은제, 고해규, 김성문, 이귀영, 김경화, 모춘희, 이정민, 김갑순, 전지은, 이수옥, 김응희, 정윤식, 백승자, 남궁순자, 권명희, 강상대, 문천심, 최인정, 김혜령, 이용범, 안승옥, 오지만, 노보석, 오명성, 김현규, 이계옥, 최순임, 이인자, 김순분, 홍문숙, 장현숙, 장연희, 정해자, 문숙자, 이선자, 김경화, 명세식, 신정자, 김미경, 안길순

기타후원 권희숙, 이은혜, 김태희, 이현숙, 배노미, 문지혜, 엄인영

매일미사 윤주실, 이해진, 최원강, 현하나, 김준식, 이병희, 김성현, 김성은, 김혜원, 김월순, 이홍림, 나경민, 이덕용, 오춘자, 허정미, 김선구, 이정순, 배수연, 전민식, 신현범, 박석현, 정은지, 강홍희, 정은경, 한희수, 노우현, 박수정

평화방송 조은경, 공화선, 박춘미, 홍영애, 정옥이, 류정숙, 남북희, 박상순, 서옥순, 박상복, 박찬주, 민미혜, 신선화, 김광자, 남예림, 이수란, 안용려, 고순례, 허정우, 김민정, 길영주, 김명신, 이지섭, 유해옥, 강양순, 최은미, 박신영, 한봉남, 홍춘자, 양풍금, 김진수, 정정애, 맹재임, 오순남, 박춘자, 김영은, 남경희, 조남영, 김윤자, 고영순, 최은영, 김수연, 김민서, 김진옥, 소귀례, 최정숙, 민상훈, 김숙자, 박환, 박정현, 한상용, 김영희, 이송열, 최재화, 이현재, 조재연, 남선우, 서이순, 소피아, 김순자, 김화숙, 조중자, 임영자

가톨릭신문 황인선, 성기정, 박희숙, 박순남, 이영숙, 김진업, 강호준, 배은진, 이송자, 엄수향, 이승준, 이민준, 이진구, 이애숙

가톨릭 평화 신문 노명희, 김익현, 최영화

지출

모금 준비비 모금용 휴대폰 요금 19,540 ARS 이용료 13,200

봉사자 지원비 직원수당 1,350,000 간식비(철원성당 모금) 14,060

레지오 훈화 2-4.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의 -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2)

성모 마리아의 동정에 관하여 오랫동안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자연 과학적 입장, 종교학적 입장, 그리고 성경의 해석학적 입장에서 이의가 제기되었다. 마리아의 동정 잉태는 자연적 현상을 초월한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표현하는 마리아의 동정 잉태는 하느님의 전능을 드러내는 한 가지 징표로서의 신앙 진술이다. 이러한 신앙 진술은 그리스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신 제우스와 인간 여성의 성적 결합으로 탄생하는 반신반인이나 영웅의 신화적 서술과는 구별된다. 또한 성모님의 동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표현들, 곧 “아들을 낳을 때까지”(마태 1,25), “첫아들”(루카 2,7), ‘예수님의 형제’(마르 3,31-35 참조) 등의 표현도 마리아의 동정 잉태를 거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결국 마리아의 동정은 하느님의 전능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신비이며, ‘하느님이신 말씀’이 인간이 되신 강생의 신비의 표징이다. ‘동정’이 지시하는 더욱 중요한 의미는 한 인간이 온전히 자신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느님께만 전적으로 봉헌한 사실이다. 이처럼 마리아의 동정은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된 순결한 인간의 신비를 드러낸다.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올바른 성모신심, 18-19쪽>